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산중 타령

그들은 더이상 입을 놀려 말장난이 나 할 노릇이 아니라고 서로 내뿜어대고 한 것처럼 다시 만나지 마자 바빠졌던 입을 꼭 다물었다. 그들의 입이 다물어지자 사위가 세상 적 요하였다. 이윽고 큰 불소리를 건넌 뒤에서도 더욱 그런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조금 뒤의 귀여운 직각의 바위 너를 감돌아가자 거기에 마치 별건곤(別乾坤)이라도 펼쳐진 듯이 깊숙히 내려앉은 저자거리와도 같은 천연의 공간이 있었다. 거기에 한 고을을 차려도 되겠다. 아니 내금강 일대의 크고 작은 사람들이 일견만 아찌 이런 좋은 공간을 그대로 깨어쳐할 방치하고 있는지 몰랐다.

년 끝에 한 퇴락한 3칸짜리 암자에 이르렀다. "여기가 내 금강산 토굴이올시다. 찬밥은 수북히 있으니 찬밥으로 먹을까요? 불기운을 넣어 더운 밥으로 먹을까요?" "화두(話頭)입니까?" 파현이 물었다. "이미 화두야 개에게나 물러준 타이고 나에게는 화두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입니다. 그냥 찬밥으로 배를 채우시지요." 말하지만 손님 대접에서 푸대접이 찬 밥일 터이다. 꿈보는 수월과 파현을 푸대접으로 작정한 것인지 모른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드나들어야하는 후관에서 꺼내온 밥 합지박에 대고 나무수

"어디서 오는 객승이시오"  
"그저 일만이천봉에 들어 오는 길입니다"  
"일만이천봉 다 만져보려고?"  
"한두개 만져보면 되겠습니까"  
"잔소리 작작하고 어서 이리로 들어와 하룻밤을 청하시지...  
간드러진 계집이 없는 대신 관세음보살이 수청을 들어 주실터인즉"  
표훈사 누각에 올라앉은 보임승의 말에는 배가 들어 있었다

가바야했다. 파현은 본디 물결에 익숙한 몸이어서인지 이런 가파로운 산길에는 안색이 달라져 있었다. 입은 벌어져 있으나 그 입에서는 거친 숨결만이 나왔다. 이렇게해서 그들이 외금강 표훈사에 이른 것이다. 날이 저무니 개마리(개마루)가 맞은 만리도 한 군단(軍團)을 이루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힘차게 건너가는 것이었다. 도중에 공왕 섬까지 말고 지팡이 짚고 봉고향으로 가거라 (勿於中道捨空王 策杖還須奉本朝)

노승도 그 맑은 눈빛을 초아래지 않았다. "왜 두 다리를 뺐는데 그러. 나도 하도 걸어다녀서 요새는 두 다리를 잘 못쓰는 행편이지... 머구나 방구석에 앉아서 몇10 철을 보낸 터라 숫새 앉은뱅이 노릇에 정이 들었어."  
"..."  
"가서 저쪽 요새에 뒤에 묵욕하는대가 있으니 가서 풀 대와 때깍재거나 좀 빗기 시게."

표훈사 당우는 하나하나가 위풍당당한 것 뿐 아니라 첫째 30여채나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불에 탄 것은 아직 복구되지 않은채인데도 그 정도였던 것이다. 실로 나그네에게는 묵욕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었다. 큰 가마에 물고 가득히 담고 장작불을 싣는 편 뒤 그 더운 물에서 퍼지는 증기로 차츰 열사라도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바가지씩 깨는 일이란 여간 아니었다.

보라 그를 들고 나온 고기 도리어 물에 잠가는데 길 돌아온 풀말은



53

## 수미산

폐허라고 하지만 어찌 그런 곳이 폐허이겠는가. 정작 동쪽으로 솟아오른 대세지봉과 그 한쪽 문수봉 사이에는 마치 선녀가 우의(羽衣)를 너를거리며 날아가는 형국의 우아한 능선이 걸려있었다. 산세도 이런 정감(情感)을 불러 일으키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짐작할 만한 눈에는 그저 지나치지 않게 되었다. 파현이 관세음 힘을 얻어 한마디 꺼냈다. "여기다 큰 도량을 짓고 한 세상 사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셋으로 퍼먹기 시작하였다. 반찬은 단한가지였다. 묵은 백김치였다. 소금에 숨 죽인 것 말고는 어떤 양념도 치지 않은 것이었다. "진수성찬입니다." "그 말씀이 진정이라면 고맙습니다." "진정이다마더요." 라고 수월이 이제는 꿈보에 대한 경계를 풀어버린 채 범상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 오후에 접어들어서 먹은 늦은 점심이었다.

도대체 이 노래는 어느 누가 지어낸 소리인가. 그 노래가 수월의 할턱이는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되었다가 느닷없이 튀어나왔다. 그야말로 그것은 뜻밖의 구호와 다름 없었다. 그의 입에 나온 자리가 운운에 마음이 탁 걸렸다. 꼭 굵은 생선가시가 목구멍에 걸린 것 같았다. 지팡이를 저 아래 메마른 폭포의 한 군데에 던져버렸다. 지팡이가 사뭇 날개가 돌아나 날개 날아갔는 것 같았다.

## "회월당 도인이십니까" 묵욕을 마친 수월이 다짜고짜 물으니...

그때였다. 꿈보처사가 꾸짖듯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다. "여보 화상! 이미 도량을 마음에 갖은 이곳에 무슨 도량을 덮어 운다 그 말이오?" 거간이 필요하였던가. 수월이 나서야 하였다. "도량이야 단층보다 층층으로 오르고 올라 층층으로 하늘에 닿아 정녕 수미산도 넘어야 하겠지요." 꿈보가 큰 키를 우물대며 대구를 이었다. "허어 어디 이 세상 허공에 수미산이 있고 8천8백지옥이 있다는 말이오. 이제 보니 선방에서 즐다가 온 사람의 마음 속에 그런 소승(小僧)의 동화(童話)나 증언거리하는 것으로 차 있으니 돼지의 창자에 돼지들이 차 있을과 무엇이 다르리." "허어 역시 오늘 나는 금강산 입구에서 도인을 만난 것인지 돼지를 만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부처의 눈을 아직 지나지 못했으니 보이는 부처도 돼지로 보이는 것인가?" 수월의 이 말에 꿈보가 더이상 대들지 않았다. "산님 이것으면 한번 지는 것이 팔씨름 판에서도 법(法)이지"라는 알송달송한 푸

그들은 표훈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곳 누각에 올라앉은 한가한 보임승(衲僧)이 할것 이쪽 행색을 눈여겨보는 것이었다. "여기서 오는 객승이시오?" 수월이 의정하게 대답하였다. "어디다 할 것은 없습니마더만 그저 일만이천봉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일만이천봉 다 만져보려고?" 하고 대번에 반말이었다. "한두개 만져보면 되겠습니까." "잔소리 작작하고 어서 이리로 들어와 하룻밤을 청하시지... 여기가 간드러진 계집이 없는 대신 관세음보살이 수청을 들어 주실 터인즉." "어 배가 세워져 들어있었다. 이로 부터 두사람은 상대방과 비기거나 겨루는 따위의 수작을 구력 속에 채운 토기처럼 가두어 버렸다. "저 아랫쪽 층층도 서산방에서 오는 길입니다."

비단글레 벗어났으며 (透網金鱗脫水 趨波石馬出新籠) 수월이 짙은 증기 속에서 그 증기에 폭 짙은 소리로 맞바디 노래를 흥겹게 불렀다. 이런 수월에게 처음으로 파현이 농을 청하였다. 함께 발가슴으로 녹아들어서 었는 지 모른다. "무욕도에서도 이런 묵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강을 하는 마 당에 무엇때문에 본래면목만 찾으십니까?" "본래면목이라." "그냥 좋다! 좋다! 아이구 좋구나! 하는 것이 더 본래면목이 아닙니까?" "본래면목이라." "수월님! 무욕도의 인담스님께서 왜 그렇게 공부하던 줄 아십니까?" "무슨 소리인가?" "그분이 한강 문자승(文字僧)이고 사를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하(西河)의

사를 공격하게서라도 받아들여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가지... 언제나 아래는 모르고 위만 아는 소승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더라도 아래로 내려오라는 말인가?" "내려올 아래가 있다면 한번 내려오시지요. 금강산 오르기보다 내려가기가 더 어려운 경계 아니겠습니까?" "파현수좌! 자네가 오늘 따라 제법 어라 한과(阿羅漢果)를 터득한 소리를 하는군. 어찌 반가운 노릇이 아닌가." "아닙니다. 소승은 우리를 받아들인 그 노승이 아무래도 신계가 회월당이라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런 사람을 감당할 공부야 세상 간절할 따름입니다." "정녕!" 수월이 벌거숭이 앞몸을 번쩍 일으켜 세워 한동안 서 있었다. 더운 물에 익은 몸이 고 증기 속의 몸이건만 서있는 동안 식기 마련이었다. 그러자 파현이 그런 수월의 서 있는 앞몸에 더운 물을 끼얹었다. 한두번이 아니



라 맞바디고 되풀이 깨는 것이었다. "지금 파현수좌가 나를 어린 아이로 삼아 묵욕시키고 있는가?" "굳이 어린 아이처럼 간나 싶달까(感多)를 묵욕시키는 건 불(佛)이 용서합니다." "자네 장년이 관찮네." 이때부터 두사람은 서로 동등한 처지로 되어 그동안 파현이 수월을 섬기며 따르던 사이가 아니게 되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은 몸의 때도 몸의 일부분인지라 다 벗겨내지 않고 남겨둔채 묵욕을 나왔다. 수월에게 산중 한 기운이 베푸는 감기에 걸려 당장 기침이 나오는 것이었다. 노승의 방으로 갔다. 수월이 다짜고짜 물었다. "회월당 도인이십니까?" 노승은 흥명스러웠다. "이 사람이 회월당의 턱주기에에는 다섯서 수월이 있어. 내 턱에 어디 그런 요망한 턱이 있단말가."

그림·조향숙

민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 일타큰스님께서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신국판 /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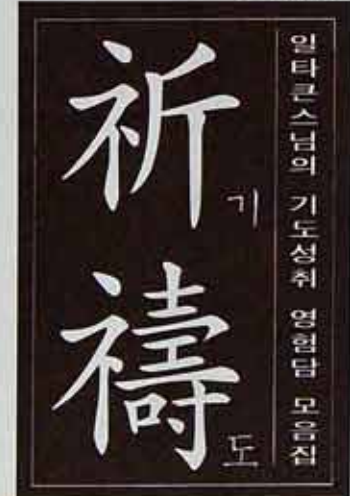
"불보살의 가피!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큰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뛰어난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불행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 III. 업병도 불사명도 기도를 통하여 / IV. 욕심을 구원 일념의 기도
- V. 생활 속의 기도와 특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일타큰스님의 유훈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범공양문

72년 초판 발행 이후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왔던 이 책은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하고 정확한 번역으로 새롭게 중보 발간하여 다시 선보였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깊은 맛이 우리나라는 책으로 마음의 평화와 풍요를 얻게 하는 것이다. 25,000원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알려주고자,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유훈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유훈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 II. 유명인이 실증한 유훈회와 인과
- III.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응보담 / IV.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 V.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담보 /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국판 / 4,5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 법문 태어보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닿아주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법문!  
·큰스님 살아있는 이야기 (테이프 1·2)  
·아름·마음·마음 (테이프 3)  
·오보현을 이루는 공부 (테이프 4)  
·청원 회향 (테이프 5) 5개 테이프 10,000원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김성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서 적당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읽고 싶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2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경> 김성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은 어느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경>은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25,000원

아운비구의 <자경문> 김성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큰스님이 직접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한다. 불자와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가득 담긴 자기도도 삶을 열망하기 바란다. 25,000원

\* 동심요리

전화 : (02) 587-6612·3 팩스 : (02) 586-9078